

<역주>

『唐會要』 권6, 和蕃公主 및 雜錄 譯註*

唐 嘉 唯**

—〈목차〉—

- I. 和蕃公主
- II. 雜錄

I. 和蕃公主¹⁾

弘化. [原註²⁾: 宗室女. 貞觀十三年十一月, 降吐谷渾慕容諸葛鉢].

흥화공주³⁾. 종실의 딸이다. [태종] 정관 13년(639) 11월 吐谷渾⁴⁾ 慕容諸

* 『唐會要』 권6, '和蕃公主' 및 '雜錄', 上海古籍出版社, 86~91쪽을 저본으로 하였다.

** 東國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課程.

1) 화번공주의 개념 등에 대해서는 호리 도시카즈(堀敏一) 저, 정병준·이원석·채지혜 역,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288쪽; 氣賀澤保規, 『絢爛たる世界帝國 - 隋唐帝國 -』(中國の歴史 6), 講談社, 2005, 302쪽 등 참조. 이하 出典은 처음에만 적겠다.

2) 이하 원문에서 [] 안의 문장은 原註이다.

3) 弘化公主에 대해서는 許春華, 「弘化公主下嫁吐谷渾原因探析」, 『文教資料』, 2009-26; 李浩, 「新見唐代吐谷渾公主墓誌의 初步整理研究」, 『中華文史論叢』 2018-3 등 참조.

4) 『新唐書』 권221上, 吐谷渾傳, “吐谷渾居甘松山之陽, 洮水之西, 抵白蘭, 數千里. 有城郭, 不居也, 隨水草, 帳室·肉糧. 其官有長史·司馬·將軍·王·公·僕射·尚書·郎中, 蓋慕諸華爲之. 俗識文字, 其王椎髻黑帽, 妻錦袍織裙, 金飾首”(中華書局, 6224쪽). 이하 中國正史는 中華書局標點本 이용.

(諾?)葛鉢에게 강가[降]하였다.⁵⁾

文成. [宗室女. 貞觀十五年正月十五日封, 降于吐蕃贊普弄讚, 命江夏王送之. 弄讚親迎于河源, 見王, 行子婿禮甚謹, 歎大國服飾禮儀之美, 俯仰有媿沮之色, 謂所親曰, “我祖父未有通婚大國者, 今我得尚大唐公主, 當築一城, 以誇示後世”, 仍遣酋豪子弟, 請入國學, 以習詩·書, 從之].

문성공주⁶⁾. 증실의 딸이다. 정관 15년(641) 정월 15일 [문성공주에] 봉하여 吐蕃⁷⁾ 贊普⁸⁾인 弄讚에게 강가하였는데, 江夏王 [李道宗에게]⁹⁾ 명하여 호송하도록 하였다. 농찬은 친히 河源에서 [공주를] 맞이하여 강하왕을 만나 子婿禮를 행함이 매우 공손하였고, 대국의 복식과 예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행동거지[俯仰]에 부끄러워하고 위축되는 기색이 있었다. 가까운 이에게 이르길, “나의 조부는 일찍이 대국과 통혼한 적이 없었으나 지

5) 정병준, 「吐蕃의 土谷渾 併合과 大非川 戰鬪 - 唐朝의 韓半島 政策과 관련하여 -, 『역사학보』 218, 2013, 312쪽 참조. 『資治通鑑』 권195, 정관 13년(639) 12월 조, “吐谷渾王諾葛鉢來朝, 以宗女爲弘化公主, 妻之”(中華書局, 6150쪽).

6) 何耀華, 「論文成公主入藏」, 『雲南社會科學』 1998-1; 曹國寧, 「論文成公主入藏和親的歷史貢獻」, 『河西學院學報』 2013-3; 호리 도시카즈,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284~285쪽; 藤野月子, 『王昭君から文成公主へ - 中國古代の國際結婚 -, 九州大學出版會, 2012, 95~105쪽 등 참조.

7) 『舊唐書』 권196上, 吐蕃傳上, “吐蕃, 在長安之西八千里, 本漢西羌之地也. 其種落莫知所出也, 或云南涼秃髮利鹿孤之後也. 利鹿孤有子曰樊尼, 及利鹿孤卒, 樊尼尚幼, 弟得檀嗣位, 以樊尼爲安西將軍. 後魏神瑞元年, 得檀爲西秦乞佛熾盤所滅, 樊尼招集餘衆, 以投沮渠蒙遜, 蒙遜以爲臨松太守. 及蒙遜滅, 樊尼乃率衆西奔, 濟黃河, 逾積石, 於羌中建國, 開地千里. 樊尼威惠夙著, 爲羣羌所懷, 皆撫以恩信, 歸之如市. 遂改姓爲罕野野, 以秃髮爲國號, 語訛謂之吐蕃. 其後子孫繁昌, 又侵伐不息, 土宇漸廣. 歷周及隋, 猶隔諸羌, 未通於中國”(5219쪽).

8) 『구당서』 권196상, 토번전상, “其國人號其王爲贊普, 相爲大論·小論, 以統理國事. 無文字, 刻木結繩爲約. 雖有官, 不常厥職, 臨時統領”(5219쪽).

9) 『구당서』 권60, 宗室, 江夏王道宗傳, “道女從父弟也. 父韶, 追封東平王, 贈戶部尚書”(2354쪽).

금 내가 大唐公主에게 장가드니, 마땅히 하나의 성을 쌓아 후세에 과시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僊豪子弟를 보내 國學에 입학하여 詩·書を 익히길 청하자 이를 허락하였다.¹⁰⁾

金城. [雍王守禮女. 神龍三年四月十四日, 降于吐蕃贊普].

금성공주¹¹⁾. 雍王 [李]守禮의 딸이다. [중종] 신룡 3년(707) 4월 14일 10번 찬보에게 강가하였다.¹²⁾

寧國. [肅宗女. 乾元元年七月十七日, 出降回鶻英武威遠毘伽可汗, 置公主府. 二年八月二十三日, 自蕃還. 至貞元五年四月十二日, 議罷公主府, 置邑司].

영국공주¹³⁾. 숙종의 딸¹⁴⁾이다. [숙종] 건원 원년(758) 7월 17일 回鶻 英

10) 『자치통감』 권196, 정관 15년(641) 정월 조, “命禮部尙書江夏王道宗持節送文成公主于吐蕃. …… 遣子弟入國學, 受詩·書”(6164~6465쪽).

11) 閆祖年, 「評金城公主入蕃聯姻之歷史貢獻」, 『西藏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8-3; 黃全毅, 「唐金城公主生平考」, 『長江叢刊』 2018-21; 藤野月子, 『王昭君から文成公主へ』, 106~113쪽 등 참조.

12) 『구당서』 권196상, 토번전상, “中宗神龍元年, 吐蕃使來告喪, 中宗爲之舉哀, 廢朝一日. 俄而贊普之祖母遣其大臣悉薰熱來獻方物, 爲其孫請婚, 中宗以所養雍王守禮女爲金城公主許嫁之”(5226쪽).

13) 崔明德, 「唐與回紇和親公主考述」, 『文史哲』 1991-2, 98~99쪽; 王田田, 「唐與回紇和親研究」, 『邢臺學院學報』 2007-1, 52~53쪽; 王有德, 「唐與回紇和親研究」, 『新疆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84-4, 113~114쪽; 範香立, 「唐代和親研究」, 安徽大學 博士學位論文, 2015, 49~50쪽 등 참조.

14) 당조가 회흘에게 황제의 친딸을 시집보낸 이유에 관해서는 日野開三郎, 「唐代和蕃公主の眞假制と資裝費」, 唐代史研究會 編,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1970, 309~323쪽; 「唐代の華蕃公主」,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第九卷, 三一書房, 1984, 253~259쪽; 호리 도시카즈,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293쪽; 氣賀澤保規, 『絢爛たる世界帝國』, 304~305쪽; 정재훈, 『위구르 유목제국사(744~840)』, 문학과지성사, 2005, 178쪽 등 참조.

武威遠毘伽可汗에게 강가[出降]하였고 公主府를 설치하였다.¹⁵⁾ [건원] 2년(759) 8월 23일 회골[蕃]에서 돌아왔다.¹⁶⁾ [덕종] 정원 5년(789) 4월 12일에 이르러 議하여 公主府를 파하고 邑司¹⁷⁾를 두었다.

永樂. [宗室女. 開元二十五年十一月三日, 出降契丹松漠郡王李失活].

영락공주¹⁸⁾. 종실의 딸이다. [현종] 개원 25년(737) 11월 3일 契丹¹⁹⁾ 松漠郡王 李失活²⁰⁾에게 강가하였다.²¹⁾

燕郡. [餘姚公主女, 慕容氏. 開元十五年閏五月十九日, 出降契丹松漠郡王李鬱于焉].

-
- 15) 『구당서』 권195, 廻紇傳, “秋七月丁亥, 詔以幼女封爲寧國公主出降. 其降蕃日, 仍以堂弟漢中郡王瑀爲特進, 試太常卿, 攝御史大夫, 充冊命英武威遠毗伽可汗使”(5200쪽).
- 16) 『구당서』 권195, 廻紇傳, “毗伽闕可汗初死, 其牙官, 都督等欲以寧國公主殉葬, 公主曰, 我中國法, 婿死, 即持喪, 朝夕哭臨, 三年行服. 今回紇娶婦, 須慕中國禮. 若今依本國法, 何須萬里結婚. 然公主亦依回紇法, 髣面大哭, 竟以無子得歸. 秋八月, 寧國公主自回紇還, 詔百官於明鳳門外迎之”(5202쪽).
- 17) 『신당서』 권49하, 百官志4下, 王府官, “公主邑司, 令一人, 從七品下. 丞一人, 從八品下. 掌公主財貨·稟積·田園. 主簿一人, 正九品下. 錄事一人, 從九品下. 督封租·主家財貨出入. 有史八人, 謁者二人, 舍人二人, 家史二人”(1308쪽); 『唐六典』 권29, 公主邑司, 中華書局, 733~734쪽 등.
- 18) 範香立, 「唐代和親研究」, 53쪽; 崔明德, 「唐與契丹·奚和親公主考述」, 『西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8-3, 56쪽 등 참조.
- 19) 『구당서』 권199하, 거란전, “契丹, 居潢水之南, 黃龍之北, 鮮卑之故地, 在京城東北五千三百里. 東與高麗鄰, 西與奚國接, 南至營州, 北至室韋. 冷陁山在其國南, 與奚西山相崎, 地方二千里”(5349~5350쪽).
- 20) 『구당서』 권199하, 거란전, “開元三年, 其首領李失活以默啜政衰, 率種落內附. 失活即盡忠之從父弟也. 於是復置松漠都督府, 封失活爲松漠郡王, 拜左金吾衛大將軍兼松漠都督”(5351쪽).
- 21) 『자치통감』 권211, 개원 5년(717) 11월 및 12월 조, “丙申, 契丹王李失活入朝. 十二月, 壬午, 以東平王外孫楊氏爲永樂公主, 妻之”(6730쪽).

연군공주²²⁾. 餘姚公主의 딸로 慕容氏이다. 개원 15년(727) 윤5월 19일 거란 송막군왕 李鬱于에게 강가하였다.²³⁾

固安. [從外甥女辛氏. 開元五年二月, 出降奚首領李大酺. 至八年, 大酺戮死, 共立季弟魯蘇爲主, 仍以公主爲妻. 時魯蘇牙官塞默羯謀害魯蘇, 翻歸突厥, 公主密知之, 遂誘而殺之. 上嘉其功, 賞賜累萬. 公主嫡母嫉主榮寵, 乃上言云主是庶生, 請別以所生主嫁魯蘇. 上怒, 乃令離婚].

고안공주²⁴⁾. 從外甥女 辛氏이다. 개원 5년(717) 2월 奚²⁵⁾首領 李大酺에게 강가하였다.²⁶⁾ 개원 8년(720)에 이르러 이대포가 살해되자 함께 막내 동생 [李]魯蘇를 군주로 세우고 아울러 공주를 처로 삼았다. 당시 이노소의 牙官 塞默羯이 이노소를 살해하고 도리어 突厥로 귀부하려고 모의하였는데, 공주가 몰래 이를 알고 마침내 [새목갈을] 유인하여 살해하였다.²⁷⁾ 황제가 그 공적을 가상히 여겨 累萬을 賞賜하였다. 공주의 嫡母는 공주에 대한 은총을 질투하여 마침내 上言하여 공주가 서출[庶生]이라고 하며 별도로 [자신이] 낳은 딸을 이노소에게 강가해 줄 것을 청하였다. 황제가 노하

22) 崔明德, 『唐與契丹·奚和親公主考述』, 57쪽 등 참조.

23) 『구당서』 권199하, 거란전, “[開元]十年, 鬱于入朝請婚. 上又封從妹夫率更令慕容嘉賓女爲燕郡公主以妻之. 仍封鬱于爲松漠郡王, 授左金吾衛員外大將軍兼靜析軍經略大使, 賜物千段. 鬱于還蕃, 可突于來朝, 拜左羽林將軍, 從幸并州. 明年, 鬱于病死, 弟吐于代統其衆, 襲兄官爵, 復以燕郡公主爲妻”(5352쪽).

24) 範香立, 『唐代和親研究』, 55쪽; 崔明德, 『唐與契丹·奚和親公主考述』, 58~59쪽 등 참조.

25) 『신당서』 권219, 奚傳, “奚亦東胡種, 爲匈奴所破, 保烏丸山. 漢曹操斬其帥蹋頓, 蓋其後也. 元魏時自號庫真奚, 居鮮卑故地, 直京師東北四千里”(6173쪽).

26) 『자치통감』 권211, 개원 5년(717) 4월 조, “甲戌, 賜奚王李大酺妃辛氏號固安公主”(6727쪽).

27) 『신당서』 권219, 해전, “牙官塞默羯謀叛, 公主置酒誘殺之, 帝嘉其功, 賜主累萬”(6174쪽).

여 마침내 이혼하게 하였다.²⁸⁾

東光. [咸安公主女韋氏. 降奚首領魯蘇].

동광공주²⁹⁾. 咸(成?)安公主의 딸로 韋氏이다.³⁰⁾ 해 수령 이노소에게 강가하였다.

交河. [十姓可汗阿史那懷道女. 開元五年十二月, 出降突騎施可汗蘇祿].

교하공주³¹⁾. 十姓可汗³²⁾ 阿史那懷道の 딸이다. 개원 5년(717) 12월 突騎施可汗 蘇祿에게 강가하였다.³³⁾

和義. [宗室女. 天寶三載十二月十四日, 出降寧國奉化王].

화의공주³⁴⁾. 종실의 딸이다. [현종] 친보 3재(744) 12월 14일 寧國³⁵⁾ 奉

28) 『구당서』 권199하, 해국진, “八年, 大輔率兵救契丹, 戰死, 其弟魯蘇竝立. 十年, 入朝, 詔令襲其兄饒樂郡王, 右金吾員外大將軍兼保塞軍經略大使, 賜物一千段, 仍以固安公主爲妻. 而公主與嫡母未和, 遞相論告, 詔令離婚, 復以咸安公主之女韋氏爲東光公主以妻之”(5355쪽).

29) 範香立, 「唐代和親研究」, 56쪽; 崔明德, 「唐與契丹·奚和亲公主考述」, 59~60쪽 등 참조.

30) 『구당서』 권199하, 해국진, “復以咸安公主之女韋氏爲東光公主以妻之”(5355쪽). 한편 『신당서』 권219, 해전에서는 “更以盛安公主女韋爲東光公主妻之”(6174쪽)라고 한다.

31) 範香立, 「唐代和親研究」, 67~69쪽; 安勝藍, 「以交河公主事迹爲中心看唐與突騎施之关系」, 『絲綢之路』 2017-10 등 참조.

32) 『구당서』 권194하, 突厥傳下, “十姓可汗, 自垂拱已後, 十姓部落頻被突厥默啜侵掠, 死散殆盡. 及隨斛瑟羅纔六七萬人, 徙居內地, 西突厥阿史那氏於是遂絕”(5190쪽).

33) 『자치통감』 권212, 개원 10년 12월 조, “庚子, 以十姓可汗阿史那懷道女爲交河公主, 武后長安四年, 冊懷道爲十姓可汗. 嫁突騎施可汗蘇祿”(6754쪽).

34) 範香立, 「唐代和親研究」, 70쪽 등 참조.

35) 『신당서』 권221하, 寧遠傳, “寧遠者, 本拔汗那, 或曰黠汗, 元魏時謂破洛那. 去京師八千里. …… 玄宗開元二十七年, 王阿悉曇達干助平吐火仙, 冊拜奉化王. 天寶三載,

化王³⁶⁾에게 강가하였다.

靜樂. [天寶四載三月十四日, 封外甥女獨孤氏, 降松漠都督懷順王李懷節].

정락공주³⁷⁾. 천보 4재(745) 3월 14일 外甥女 獨孤氏를 봉하여 [거란] 松漠都督·懷順王 李懷節에게 강가하였다.³⁸⁾

宜芳. [外甥女楊氏. 天寶四載三月十四日, 出降饒樂都督懷信王李延寵].

의방공주³⁹⁾. 外甥女 楊氏이다. 천보 4재(745) 3월 14일 [해] 饒樂都督·懷信王 李延寵에게 강가하였다.⁴⁰⁾

崇徽. [僕固懷恩女. 大曆四年五月二十四日, 出降回鶻可汗].

승휘공주⁴¹⁾. 僕固懷恩⁴²⁾의 딸이다. [대중] 대력 4년(769) 5월 24일 回鶻可汗에게 강가하였다.⁴³⁾

改其國號寧遠, 帝以外家姓賜其王曰寶, 又封宗室女爲和義公主降之. 十三載, 王忠節遣子薛裕朝, 請留宿衛, 習華禮, 聽之, 授左武衛將軍”(6250쪽).

36) 『신당서』 권221하, 寧遠傳, “玄宗開元二十七年, 王阿悉爛達干助平吐火仙, 冊拜奉化王. 天寶三載, 改其國號寧遠, 帝以外家姓賜其王曰寶, 又封宗室女爲和義公主降之”(6250쪽).

37) 範香立, 「唐代和親研究」, 54쪽 등 참조.

38) 『신당서』 권219, 거란전, “天寶四載, 契丹大酋李懷秀降, 拜松漠都督, 封崇順王, 以宗室女獨孤爲靜樂公主妻之. 是歲, 殺公主叛去, 范陽節度使安祿山討破之”(6172쪽).

39) 範香立, 「唐代和親研究」, 56~57쪽 등 참조.

40) 『신당서』 권219, 奚傳, “延寵降, 復拜饒樂都督, 懷信王, 以宗室女楊爲宜芳公主妻之. 延寵殺公主復叛”(6175쪽).

41) 範香立, 「唐代和親研究」, 50~51쪽 등 참조.

42) 『신당서』 권224上, 僕固懷恩傳, “鐵勒部人. 貞觀二十年, 鐵勒九姓大首領率衆降, 分置瀚海, 燕然, 金微, 幽陵等九都督府, 別爲蕃州, 以僕骨歌濫拔延爲右武衛大將軍, 金微都督, 訛爲僕固氏, 生乙李暉, 乙李暉生懷恩, 世襲都督”(6365쪽).

43) 『신당서』 권217상, 回鶻傳上, “大曆三年, 光親可敦卒. 帝遣右散騎常侍蕭昕持節弔祠. 明年, 以懷恩幼女爲崇徽公主繼室, 兵部侍郎李涵持節冊拜可敦, 賜綵綵二萬”

咸安. [德宗女. 貞元四年十月, 出降回紇天親可汗. 其月二十六日, 勅置咸安公主府, 準親王例].

함안공주⁴⁴⁾. 덕종의 딸이다. [덕종] 정원 4년(788) 10월 회흘 天親可汗에게 강가하였다.⁴⁵⁾ 그달 26일 칙서를 내려 咸安公主府를 설치하고, 親王例⁴⁶⁾에 준하게 하였다.

太和. [憲宗女. 長慶元年二月, 出降回紇崇德可汗].

태화공주⁴⁷⁾. 헌종의 딸이다. [목종] 장경 원년(821) 2월 회흘 崇德可汗에게 강가하였다.⁴⁸⁾

II. 雜錄

景龍四年正月二十七日, 幸始平縣, 送金城公主, 以驍衛大將軍楊矩爲使. [上初謂侍中紀處訥曰, “昔文成公主出降, 即江夏王送之, 卿識蕃情, 又有安邊

(6120쪽).

44) 範香立, 「唐代和親研究」, 51~52쪽; 王有德, 「唐與回紇和親研究」, 114쪽; 崔明德, 「唐與回紇和親公主考述」, 100~101쪽; 王田田, 「唐與回紇和親研究」, 53~54쪽; 藤野月子, 『王昭君から文成公主へ』, 116~117쪽 등 참조.

45) 『신당서』 권83, 燕國襄穆公主傳, “始封咸安. 下降回紇武義成功可汗, 置府. 薨元和時, 追封及諡” (3665쪽). 르네 그루세 저,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역, 『유라시아 유목 제국사』, 사계절, 1998, 194~195쪽; 토마스 바필드 저, 윤영민 역, 『위태로운 변경』, 동북아역사재단, 2009, 323쪽 등 참조.

46) 『당육전』 권29, 親王府, 728~733쪽.

47) 崔明德, 「唐與回紇和親公主考述」, 101~102쪽; 王田田, 「唐與回紇和親研究」, 54쪽; 王有德, 「唐與回紇和親研究」, 114쪽; 範香立, 「唐代和親研究」, 52쪽; 『王昭君から文成公主へ』, 117~118쪽 등 참조.

48) 토마스 바필드, 『위태로운 변경』, 324쪽 등 참조.

之略, 可爲朕充此使也”. 處訥辭以不練邊事. 上又使中書侍郎趙彥昭代行, 司農卿趙履溫謂之曰, “公國之宰輔, 而爲一介之使, 不亦鄙乎?”, 彥昭曰, “計將安出?”, 履溫因爲陰託安樂公主, 密奏留之, 至是命矩行].

[중증] 경룡 4년(710) 정월 27일 [중증이] 始平縣으로 행차하여 金城公主를 전송하면서 驍衛大將軍 楊矩를 使로 삼았다.⁴⁹⁾ 황제가 이전에 侍中 紀處訥에게 말하길, “옛날 文成公主를 강가하면서 곧 강하왕에게 호송하게 하였다.⁵⁰⁾ 卿은 토번의 사정[蕃情]을 잘 알고 또 安邊의 책략이 있으니, 가히 짐을 위해 이 호송사에 충임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기처늘은 변경의 일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며 사양하였다. 황제가 다시 中書侍郎 趙彥昭에게 대신 가게 하였는데, 司農卿 趙履溫이 조연소에게 말하길 “공은 나라의 宰輔인데 일개 사신이 된다면 또한 부끄럽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조연소가 말하길 “장차 어떤 계책을 내야 하겠는가?”라고 하자, 조리온이 몰래 安樂公主에게 청탁하여 조연소를 남겨두도록 은밀히 상주하게 하였는데,⁵¹⁾ 이에 이르러 양구에게 가도록 명한 것이다.

二月一日, 改始平縣爲金城縣, 又改地爲鳳臺鄉愴別里.

2월 1일 始平縣을 金城縣⁵²⁾으로 바꾸고, 다시 그 지역을 鳳臺鄉 愴別里

49) 『신당서』 권216상, 吐蕃傳上, “帝以雍王守禮女爲金城公主妻之, 吐蕃遣尚贊咄名悉臘等逆公主. 帝念幼幼, 賜錦繪別數萬, 雜伎諸工悉從, 給龜茲樂. 詔左衛大將軍楊矩持節送”(6081쪽).

50) 『구당서』 권3, 태종본기하, 정관 15년(641) 정월 조, “丁卯, 吐蕃遣其國相祿東贊來逆女. 丁丑, 禮部尚書, 江夏王道宗送文成公主歸吐蕃. 辛巳, 幸洛陽宮”(52쪽).

51) 『신당서』 권83, 安樂公主傳, “最幼女. 帝遷房陵而主生……主營第及安樂佛廬, 皆憲寫宮省, 而工緻過之. 嘗請昆明池爲私沼, 帝曰, 先帝未有以與人者. 主不悅, 自鑿定昆池, 延袤數里. 定, 言可抗訂之也. 司農卿趙履溫爲繕治, 累石肖華山. 墮竹橫邪, 回淵九折, 以石澆水. 又爲寶鑪, 鑲怪獸神禽, 間以瑛貝珊瑚, 不可涯計”(3654쪽).

52) 『구당서』 권7, 중종본기, 경룡 4년(710) 2월 조, “壬午, 曲赦咸陽, 始平, 改始平爲金城縣. 便幸長安令王光輔馬嵬北原莊. 癸未, 至自金城. 庚戌, 令中書門下供奉官五品已

로 바꾸었다.

開元二十一年正月, 命工部尚書李暹持節于吐蕃, 以國信物一萬匹, 私覲物二千匹, 皆雜以五綵, 遣之. 及還, 而金城公主上言, 請以今年九月一日, 樹碑于赤嶺, 定蕃·漢界. 詔張守珪·李行禕與吐蕃使莽布支同往觀樹焉. 既樹, 而吐蕃遣其臣隨漢使人分往劍南及河西磧, 歷告邊州曰, “兩國和好, 無相侵掠”, 漢使告亦如之.

[현종] 개원 21년(733) 정월 工部尚書 李暹에게 부절을 지니고 토번으로 가도록 명하였는데, 國信物 1만 필과 私覲物 2천 필에 모두 五綵를 섞어 보냈다. 돌아올 때 금성공주가 上言하여 금년 9월 1일 赤嶺에 碑를 세워 蕃·漢의 境界[界]를 획정하도록 청하였다. 조서를 내려 張守珪·李行禕에게 토번의 사신 莽布支와 함께 가서 [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하였다.⁵³⁾ [비가] 세워진 뒤 토번은 그 신하를 보내 漢의 使人을 따라 각기 劍南 및 河西磧에 가서 두루 邊州에 고하길 “양국이 和好하였으니 서로 침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는데, 漢使가 고한 것 역시 이와 같았다.

二十九年, 金城公主薨, 吐蕃使來告哀.

[개원] 29년(741) 금성공주가 흥거하자 토번의 사자가 와서 告哀하였다.⁵⁴⁾

上, 文武三品已上并諸學士等, 自芳林門入集於梨園毬場, 分朋拔河, 帝與皇后, 公主親往觀之”(149쪽).

53) 『신당서』 권216상, 吐蕃傳上, “宰相建言, 吐蕃本以河爲境, 以公主故, 乃橋河築城, 置獨山, 九曲二軍, 距積石二百里. 今既負約, 請毀橋, 復守河如約. 詔可. 遣左驍衛郎將尉遲瓌使吐蕃, 慰安公主. 然小小入犯邊無閑歲, 於是郭知運, 王君奭相繼節度隴右, 河西, 一以扞之. 吐蕃遣宗俄因子到洮水祭戰死士, 且請和. 然恃盛彊, 求與天子敵國, 語悖傲. 使者至臨洮, 詔不內. 金城公主上書求聽脩好, 且言贊普君臣欲與天子共署誓刻”(6082쪽).

貞元二年四月二十九日, 太常卿董晉奏, “公主出降蕃國, 請加玉冊”. 制曰, “可”. 三年九月, 遣回紇使合闕將軍歸其國. 初, 合闕將其君命請婚于我, 許以咸安公主嫁之, 命公主見合闕于麟德殿. 且命中謁者賚公主畫圖, 就示可汗, 以馬價絹五萬疋還之, 許其互市而去. 以殿中監嗣滕王湛然爲送咸安公主使, 仍兼婚禮使.

[덕종] 정원 2년(786) 4월 29일 太常卿 董晉이 상주하길 “공주를 蕃國에 강가할 때 玉冊을 더하길 청합니다”라고 하니, 제서를 내려 “재가[可]하였다”. [정원] 3년(787) 9월 회흘의 사신 合闕將軍을 보내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전에 합궐장군은 그 군주의 명으로 우리에게 혼인을 청하였는데, 함안공주의 강가를 허락하여 공주에게 麟德殿에서 합궐장군과 만나게 하였다.⁵⁴⁾ 또한 中謁者에게 공주의 화상을 가지고 가서 바로 可汗에게 보이게 하였는데, 말 가격으로 비단 5만 필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고 그 互市를 허락하여 가게 하였다. 殿中監 嗣滕王 [李]湛然을 送咸安公主使 및 兼婚禮로 삼았다.

四年十月, 回紇公主及使至自蕃, 上御延喜門, 禁婦人及車輿觀者. 時回紇可汗喜于和親, 其禮甚恭, 乃上言曰, “昔爲兄弟, 今即子壻, 子壻半子也, 彼猶父, 此猶子也. 父若患于西戎, 子當遣兵除之”. 又罵辱吐蕃使者. 及使其宰相等率衆千餘人, 及其妹骨吐祿毗伽公主, 夷妹迷敘骨吐祿公主, 及戰使大首領等妻妾, 凡五十六婦人來迎可敦. 凡遣人千餘, 納聘馬三千匹. 上令朔州及太原分留回紇七百餘人, 其宰相大首領至者, 館于鴻臚寺. 將作監. 回紇使者見于宣政

54) 『자치통감』 권214, 개원 28년(740) 12월 조, “金城公主薨, 吐蕃告喪, 且請和, 上不許”(6843쪽).

55)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정원 3년(787) 9월 조, “丁巳, 吐蕃大掠汾陽, 吳山, 華亭界民庶, 徙於安化峽西. 庚申, 左庶子崔造卒. 癸亥, 迴紇可汗遣使合闕將軍請昏於我, 許以咸安公主降之. 丙寅, 吐蕃陷華亭, 又陷涇州之連雲堡. 甲戌, 吐蕃退, 俘掠邠, 涇, 隴等州民戶殆盡. 自是蕃寇常至涇·隴”(358쪽).

殿, 上召回紇公主及使對于麟德殿, 頒賜有差.

[정원] 4년(788) 10월 회흘공주 및 사신이 회흘(蕃)에서 이르자 황제가 延喜門으로 거둥하였는데, 婦人 및 車輿의 구경꾼들을 금지시켰다. 당시 回紇可汗이 和親에 대해 기뻐하여 그 예의가 심히 공손하였는데, 마침내 상언하기를 “옛날에는 형제였으나 지금은 사위[子壻]이니, 사위도 절반은 자식입니다. 그대는 아버지와 같고 나는 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만약 西戎에서 우환을 겪으면 자식이 마땅히 군사를 보내 그들을 제거하겠습니다.”⁵⁶⁾라고 하고는 또 토번의 사자를 모욕하였다. 그 宰相 등이 무리 1천여 인을 이끌고 사신으로 왔는데, 그 여동생 骨吐祿毗伽公主와 夷妹 迷敘骨吐祿公主 및 職使大首領 등의 妻妾 무릇 56인 婦人이 可敦을 영접하러 왔다.⁵⁷⁾ 무릇 1천여 인을 보내고 말 3천 필을 納聘하였다. 황제가 朔州와 太原에 회흘의 700여 명을 나누어 남겨두게 하고 그 宰相·大首領으로 온 자는 鴻臚寺와 將作監에 머물게[館] 하였다. 회흘사자를 宣政殿에서 알현하니, 황제가 회흘공주 및 사신들을 불러 麟德殿에서 대면하고는 차등을 두어 상사를 발급하였다.⁵⁸⁾

元和三年正月, 咸安公主薨, 廢朝三日. 初, 王師平史朝義, 北虜微有功, 恃此不修臣禮. 至貞元四年, 回紇武義成功可汗, 始遣使獻方物, 仍求結親. 德宗與

56) 『신당서』 권217상, 回鶻傳上, “明年, 可汗遣宰相衆跌都督等衆千餘, 衆遣其妹骨咄祿毗伽公主率大酋之妻五十人逆主, 且納聘. 衆跌至振武, 爲室韋所鈔, 戰死. 有詔其下七百, 皆聽入朝, 舍鴻臚, 帝御延喜門見使者. 是時, 可汗上書恭甚, 言, 昔爲兄弟, 今婿, 半子也. 陛下若患西戎, 子請以兵除之. 又請易回紇曰回鶻, 言捷鶻猶鶻然”(6123쪽).

57) 정재훈, 『위구르 유목제국사』, 262~263쪽 등 참조.

58) 『구당서』 권195, 迴紇傳, “乙未, 德宗召迴紇公主, 出使者對于麟德殿, 各有頒賜. 庚子, 詔咸安公主降回紇可汗, 仍置府官屬視親王例. 以殿中監, 嗣滕王湛然爲咸安公主婚禮使, 關播檢校右僕射, 送咸安公主及冊回紇可汗使. 貞元五年十二月, 回紇汨咄祿長壽天親毗伽可汗薨, 廢朝三日, 文武三品已上就鴻臚寺弔其來使”(5208쪽).

群臣議, 許之, 遂以公主降焉. 命使冊可汗爲勇猛分相智惠長壽天親可汗, 冊公主爲孝順端正智惠長壽可敦, 御制詩送之. [事具『德宗實錄』]. 天親可汗卒, 子忠貞可汗立, 忠貞可汗卒, 子奉誠可汗立, 奉誠可汗卒, 國人立其相, 是爲懷相可汗, 皆從胡法尚公主. 在蕃二十一年卒, 冊贈燕國大長公主, 賜諡曰襄穆.

[헌종] 원화 3년(808) 정월 咸安公主가 흥거하자⁵⁹⁾ 3일 동안 廢朝하였다. 이전에 王師가 史朝義를 평정할 때 北虜가 약간 공을 세웠는데, 이를 믿고 臣禮를 갖추지 않았다. [덕종] 정원 4년(788)에 이르러 回紇의 武義成功可汗이 비로소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치고 아울러 화친을 맺길[結親] 청하였다. 덕종이 군신들과 의논하여 이를 허락하고 마침내 공주를 강가시켰다.⁶⁰⁾ 사신에게 명하여 可汗을 勇猛分相智惠長壽天親可汗으로, 公主를 孝順端正智惠長壽可敦으로 책립하고 御制詩를 보냈다. [이 일은 『德宗實錄』에 기록되어 있다]. 天親可汗이 졸하자 아들 忠貞可汗이 즉위하였고 忠貞可汗이 죽하자 아들 奉誠可汗이 즉위하였으며 奉誠可汗이 졸하자 國人들이 그 재상을 세웠는데, 바로 懷相可汗으로 모두 胡法에 따라 공주에게 장가들었다.⁶¹⁾ [함안공주가] 회흘[蕃]에 있는 지 21년 만에 졸하니 燕國大長公主로 冊贈하고 襄穆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太和公主, 長慶元年二月封爲公主, 冊爲回紇可敦, 出降愛登裏邏骨沒密施合毗伽保義可汗, 以中書侍郎平章事崔植充冊使, 戶部侍郎平章事杜元穎充五禮使. 五月, 詔緣改定太和公主出降回紇事宜, 令中書舍人王起赴鴻臚寺宣示回紇等使. 保義可汗既立, 遣使求婚, 遂封第九妹爲永安公主, 將以降嫁焉. 其年

59) 그때 回鶻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정재훈, 『위구르 유목제국사』, 291~292쪽 등 참조.

60) 『구당서』 권195, 迴紇傳, “回紇自咸安公主歿後, 屢歸款請繼前好, 久未之許. 至元和末, 其請彌切, 憲宗以北虜有勦勞於王室, 又西戎比歲爲邊患, 遂許以妻之”(5211쪽).

61) 『신당서』 권217상, 回鶻傳上, “三年, 來告咸安公主喪. 主歷四可汗, 居回鶻凡二十一歲”(6126쪽).

三月, 保義可汗卒, 四月, 冊九姓回紇爲崇德可汗, 五月, 遣使請迎所許嫁公主. 朝廷以封第五妹爲太和公主以降, 今回紇雖狄人, 固請永安而終不許, 故命中書舍人王起充鴻臚寺以宣諭焉. 又詔左金吾大將軍胡證充送公主爲回紇可敦歸國及加冊可汗等使, 光祿卿李憲充副使, 太常卿李銳充婚禮使. 公主置府, 官屬准親王例, 仍鑄邑司印一面. 及發, 上以半仗禦通化門送之, 勅常參官於章敬寺前立班, 儀衛甚盛, 仍令京兆府權置公主幕次, 暫駐受百寮之謁見, 士女傾城觀焉.

太和公主는 [목종] 장경 원년(821) 2월 공주로 봉해져 回紇可敦으로 책립되어 爰登里邏骨沒密施合毗伽保義可汗에게 강가되었는데,⁶²⁾ 中書侍郎·平章事 崔植이 冊使에 충임되었고 戶部侍郎·平章事 杜元穎이 五禮使에 충임되었다. 5월 조서를 내려 태화공주를 회홀에 강가하기로 사의가 개정됨에 따라 中書舍人 王起에게 鴻臚寺로 가서 회홀 사신들에게 宣示하게 하였다. [이전에] 保義可汗이 즉위하고 나서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니, 마침내 [황제의] 아홉째 누이를 永安公主⁶³⁾로 봉해 장차 강가하려고 하였다. 그해 3월 보의가한이 졸하자 4월 九姓回紇을 崇德可汗에 책립하였고, 5월 사신을 보내 강가를 허락한 공주를 맞이하기를 청하였다.⁶⁴⁾ 조정은 [황제의] 다섯째 누이를 태화공주로 봉해 강가하였는데, 지금 회홀이 비록 狄人이지만 진실로 영안공주를 청하였음에도 끝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서사인 왕기에게 명하여 흥려시에 가서[充] 宣諭하게 한 것이다. 다시 조서를 내려 左金吾大將軍 胡證을 공주를 送公主爲回紇可敦歸國及加冊可汗等使에, 光祿卿 李憲을 副使에 충임하였고 太常卿 李銳를 婚禮使에 충임하였다.⁶⁵⁾

62) 정재훈, 『위구르 유목제국사』, 298쪽 등 참조.

63) 王有德, 『唐與回紇和親研究』, 114쪽 등 참조.

64) 『구당서』 권195, 迴紇傳, “五月, 回紇宰相, 都督, 公主, 摩尼等五百七十三人入朝迎公主, 於鴻臚寺安置, 敕, 太和公主出降回紇爲可敦, 宜令中書舍人王起赴鴻臚寺宣示, 以左金吾衛大將軍胡證檢校戶部尚書, 持節充送公主入回紇及冊可汗使, 光祿卿李憲加兼御史中丞, 充副使, 太常博士殷侗改殿中侍御史, 充判官”(5211쪽).

65) 『구당서』 권16, 목종본기, 장경 원년(821) 5월 조, “皇妹太和公主出降回紇登羅骨沒

公主府를 설치하여 官屬은 親王例에 준하게 하였고, 아울러 邑司印 1面을 주조하게 하였다.⁶⁶⁾ [7월] 출발하기에 이르러 황제가 절반의 의장대[半仗]를 거느리고 通化門으로 가서 송별하고 칙서를 내려 常參官에게 章敬寺 앞에서 立班하게 하였는데, 儀衛가 매우 성대하였다. 아울러 京兆府에 임시로 공주의 幕次를 설치하게 하고 [그곳에서] 잠시 머물며 百寮의 알현을 받게 하였는데, 士女가 성안 가득 구경하였다.⁶⁷⁾

會昌元年十一月, 勅, “緣回紇國中離亂頗甚, 太和公主恐未安寧, 須遣文臣專往訪問, 宜差通使舍人苗綰充使”. 三年二月, 太常禮院奏, “太和公主到日, 百寮於章敬寺門立班, 舊例並以邑司承命入拜, 命承命出答拜. 今商量邑司官秩, 多是至卑者, 緣恐事太輕. 今請公主左右一人, 戴鬢帛承拜兩襜, 將命出入, 以代邑司官, 謂得禮之變”. 從之. 其月二十五日, 公主自蕃還京, 詔左右神策各出軍二百人, 及太常儀仗鹵簿, 從長樂驛迎公主入城. 其日, 改封定安大長公主, 罷太和公主府, 宰臣及文武百寮於章敬寺門立班候參. 參畢, 太和公主便赴太廟, 謁憲宗, 穆宗二室, 回從光化門入內. 其日, 宰相及文武百寮赴宣政衙, 於東上閣門進名奉賀, 赴興慶宮賀太皇太后. 二十七日勅, “定安大長公主自蕃還京, 莫不哀悃, 百辟卿士, 皆出拜迎. 宣城, 貞寧, 臨貞, 貞源, 義昌等公主, 并宗室近亲, 合

施合毗伽可汗, 甲子, 命金吾大將軍胡証充送公主入回紇使, 兼冊可汗. 又以太府卿李銳爲入回紇婚禮使”(489쪽); 『신당서』 권217下, 回鶻傳下, “四夷之使中國, 其衆未嘗多此, 詔許五百人至長安, 餘留太原, 詔以太和公主下降. 主, 憲宗女也, 帝爲主建府, 以左金吾衛大將軍胡証, 光祿卿李惠持節護送, 太府卿李說爲婚禮使, 冊拜主爲仁孝端麗明智上壽可敦, 告于廟, 天子御通化門餞主, 羣臣班辭于道”(6129쪽).

66) 『구당서』 권195, 迴紇傳, “吐蕃犯青塞堡, 以回紇和親故也. 鹽州刺史李文悅發兵擊退之, 回紇奏, 以一萬騎出北庭, 一萬騎出安西, 拓吐蕃以迎太和公主歸國. 其月敕, 太和公主出降回紇, 宜特置府, 其官屬宜視親王例”(5211쪽).

67) 『구당서』 권195, 迴紇傳, “回紇自咸安公主歿後, 屢歸款請繼前好 …… 太和公主發赴回紇國, 穆宗御通化門左個臨送, 使百僚章敬寺前立班, 儀衛甚盛, 士女傾城觀焉”(5211쪽).

先慰問，晏然私第，竟已不至，度于物体，稍似非宜，各罰封絹一百匹，以塞愆違。陽安長公主既不與定安光順相見，又兩日就宅宣事，皆不在家，罰封物三百匹”。

[무중] 회창 원년(841) 11월 칙서를 내려 “회홀에서 일어난 國中의 난리가 자못 심하기 때문에⁶⁸⁾ 태화공주가 안녕하지 못할까 우려되니, 모름지기 文臣을 보내 오로지 가서 방문하게 하니, 마땅히 通使舍人 苗綰를 보내 사신에 충임한다”고 하였다. [회창] 3년(843) 2월 太常禮院에서 상주하길 “태화공주가 [장안에] 도착한 날 百寮가 章敬寺門에서 立班하였는데, 舊例에 의하면 모두 邑司에게 명을 받들어 入拜하고 명을 받들어 나와서 答拜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헤아려 보건대 邑司의 官秩은 매우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니 일이 너무 경시될까 우려됩니다. 지금 청컨대 공주 좌우의 1인에게 鬢帛를 쓰고 [명을] 받들어 답배하고 裋襦를 입게 하여 출입하도록 명함으로써 邑司官을 대신하게 하십시오. 예를 갖춘 변화라 할 것입니다.”라고 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그달 25일 공주가 회홀[蕃]에서 경사로 돌아오자 조서를 내려 左右神策[軍]에서 각각 군사 200인 및 太常儀仗 鹵簿를 차출하여 長樂驛에서 공주를 맞이하여 입성하게 하였다. 그날 [태화공주를] 定安大長公主로 改封하고 太和公主府를 파하였으며 宰臣 및 文武百寮가 章敬寺門에서 立班한 채 기다리며 참례하였다. 참례가 끝나자 태화공주는 바로 太廟에 가서 憲宗·穆宗의 二室을 배알하고 돌아와 光化門에서 대명궁[內]으로 들어왔다. 그날 재상 및 문무백료가 宣政衙로 가서 東上閣門에서 이름을 알리며 경하를 올렸으며, [공주는] 興慶宮으로 가서 太皇太后에게 경하를 올렸다. 27일 칙서를 내려 “정안대장공주(즉 태화공주)가 회홀[蕃]에서 경사로 돌아와 가련하지 않음이 없으니 百辟卿士가 모두 나가 배알하며 영접하였다. 그러나 宣城·貞寧·臨貞·貞源·義昌 등의 공주 및 종실

68) 『구당서』 권18상, 무중본기, 회창 원년(841) 11월 조, “丁酉朔, 壬寅夜, 大星東北流, 其光燭地, 有聲如雷, 山崩石隕. 其彗起於室, 凡五十六日而滅. 太和公主遣使入朝, 言烏介自稱可汗, 乞行策命, 緣初至漠南, 乞降使宣慰, 從之”(588쪽).

근친들은 마땅히 먼저 위문해야 함에도 사저에 편히 있으며 끝내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기물의 과도함이 자못 마땅하지 않은 듯이다. 각각 罰封 絹 1백 필에 처하여 잘못을 알게 하라. 陽安長公主는 아직 정안공주와 광순문에서 상견하지 않았고 또 이를 후 저택으로 가서 일을 알렸는데 모두 집에 없었으니, 罰封 絹 300필에 처한다.⁶⁹⁾

三月, 中書門下奏, “伏聞定安大長公主, 二月二十五日, 以回紇背叛恩德, 侵軼邊陲, 于光順門內脫去簪珥, 變服請罪, 陛下釋其愆負, 方敢對見. 又以宣城公主等違勅不到, 各罰封物. 伏以禮法之行, 始此中壺, 王化盛事, 人倫美談, 周易云, ‘正家而天下定矣’. 臣等忝在樞近, 不任拊賀踴躍之至, 伏望宣付史館紀述, 為百代典制”. 從之.

3월 中書門下에서 상주하길 “엎드려 듣건대 정안대장공주는 2월 25일 회홀이 恩德을 背叛하고 邊陲를 침략한 탓에 光順門 안에서 장신구[簪珥]를 빼고 變服한 채 죄를 청하였으나, 폐하께서 그 허물을 용서하시어 바야흐로 감히 알현할 수 있었습니다.⁷⁰⁾ 또한 宣城公主 등은 칙서를 어기고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비단[物]을 罰俸에 처하였습니다.⁷¹⁾ 엎드려 생각건대 예법의 시행은 이 中壺으로부터 비롯되고 王化의 盛事와 人倫의 美談은 『周易』에 이르길 ‘집안을 바로 해야 천하가 안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69) 『자치통감』 권247, 회창 3년(843) 2월 조, “上遣中使慰諭, 然後入宮. 陽安等六(七?)公主不來慰問安定公主, 各罰俸物及封絹. [胡三省注: 陽安公主, 順宗之女. 宋白曰, ‘不至者, 陽安, 宣城, 眞寧, 義寧, 臨眞, 眞源, 義昌六(七?)公主’]”(7975쪽).

70) 『자치통감』 권247, 회창 3년(843) 2월 조, “庚寅, 太和公主至京師, 改封安定大長公主. [호삼성주: 太和公主以長慶元年嫁回鶻, 至此得還. ‘安定’, 新書作‘定安’]. 詔宰相帥百官迎謁於章敬寺前. 公主詣光順門, 去盛服, 脫簪珥, 謝回鶻負恩, 和蕃無狀之罪”(7974쪽).

71) 『신당서』 권83, 定安公主傳, “主始至, 宣城以下七主不出迎, 武宗怒, 差奪封絹贖罪. 宰相建言, 禮始中壺, 行天下, 王化之美也, 請載于史, 示後世. 詔可”(3669쪽).

신 등은 樞近에 자리하면서 지극한 기쁨을 이길 길이 없으니, 옆드려 바라 건대 史館에 宣付하여 기술히게 함으로써 百代의 典制로 삼으십시오.”라고 하자, 이를 허락하였다.